

공동체 저널리즘을 위해: 김민남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삶과 학문

오창호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금년 4월 초 필자는 본인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으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 임무를 지시 받았다. 『커뮤니케이션이론』의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이 저널의 특색 있는 코너인 ‘원로교수 대담’에 이번에는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김민남 교수를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필자가 그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우선은 부끄럽게도 김민남 교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필자가 부산 지역에서 자리를 얻은 것이 2002년이었으니 이때 교수계선 벌써 화갑을 보냈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임강사로 정신없이 적응하던 시기에 그 분께선 정년을 앞두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한다는 것이 피상적이고 상투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선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고 또 인간적으로 김민남 교수를 잘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편집위원장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두 가지를 준비했다. 하나는 김 교수께서 쓰신 책을 구해서 읽어 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계 제자를 찾아 그의 인간적 면모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대체적인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좌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교수님은 몇 년 전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후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게다가 이명증까지 겹쳐 도저히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정중한 거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편집위원장과 의논 끝에 다소 새로운 형식이지만 김민남 교수에 대한 인물평론으로 ‘원로 교수 대담’을 꾸미기로 했다. 기본적인 자료를 구해서 섭렵한 후 어렵게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근처에서 주스 한 박스를 사들고 부경대학교에서 가깝게 위치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그곳에서 병색이 완연한 초로의 노인이 필자를 어렵게 맞아주셨다.

김민남의 꿈과 인생

묵혜(默惠) 김민남, 그는 1938년생으로(호적에는 1940년생으로 기록)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동 하천리에서 부친 화강(華剛) 김영훈 선생과 모친 윤선이 여사의 일곱 남매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부친이 종묘 사업을 해서 한때 농사가 일흔 마지기에 이르러 마을에서는 백석꾼으로 불릴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가 20세가 되던 해인 1957년 부친이 당시로는 희귀병이었던 임파선 육종으로 치료를 받느라 자산을 거의 탕진했다. 화양초등학교와 모계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경북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대구의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축구시합을 하다가 앓게 된 늑막염이 폐결핵으로 악화되면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 길지 않은 경북고 시절이었지만 그는 경북고를 중퇴하기 직전 교지 『경맥(慶脈)』에 ‘농촌 경제의 부흥책’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와 차츰 건강이 회복되어 집안의 농사일을 돕게 되면서 그는 농촌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의 눈에 비친 농촌은 아무

리 빠 빠지게 일해도 가난과 무지가 대물림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는 피폐한 농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 계몽과 농촌 부흥 운동의 수단으로 '4-H 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낮에 농사일을 같이한 마을의 후배들을 불러 모아 야학을 열고, 구락부 회의를 한 달에 두어 차례씩 여는 등 젊은 이들을 과학 영농과 배움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 이 무렵 그는 당시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상계』를 애독하고 있었는데, 이 잡지에는 덴마크의 피폐한 농촌을 지상 낙원으로 부흥시켜 덴마크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룬트비(Grundtvig)와 달가스(Dalgas)의 생애와 삶을 그린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었다. 이러한 독서의 배경으로 그는 스스로 『상록수』, 『흙』의 주인공이 되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전방위로 농촌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그의 4-H 구락부 활동은 남달랐다. 청소년을 위한 4-H 구락부 외에 별도로 영농구락부와 생활개선구락부를 청년, 부녀자들과 함께 결성하여 본격적인 농촌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하천 4-H 구락부는 경상북도의 모범 4-H 구락부로 선정되었다. 그는 청도군 4-H 구락부연합회 회장과 경상북도 연합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청도 지역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곳곳의 주요 구락부를 누볐으며, 1960년 4·19 혁명 직후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4-H 구락부 전국경진대회 부원 업적 부문에서 2등을 차지하여 윤보선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과 함께 당시로서는 귀했던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

농촌 운동에 열심이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4·19 이후 새로운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한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다. 4·19 이후 대학생들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농촌 계몽 강연을 벌였는데, 이들은 지역 내 각급 기관장들로부터 상당한 경비를 받아 한 두 번 강연회를 열고는 자기네들끼리 모여 흥청거리다 훌쩍 떠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또래였던 대학생들과 올바른 농촌 운동의 방향에 대해 많

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진정한 농촌 운동이 되려면 하루 이틀이라도 농촌 마을에 머물며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땀을 흘려야 하며, 기관장들로부터 강연회 경비조로 받은 돈도 한 푼이라도 아껴 단 한 마리의 가죽 종자라도 분양하는 등 생산 중심, 현장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그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현실적인 이유로 경북고에 복학하는 대신에 읍내의 모계고등학교에 편입하여 24살이 되던 196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졸업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이 만만치 않던 그는 고교 수석 졸업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비를 면제해 준다는 동아대학교 법학과에 지원, 합격하였다. 그는 입학과 함께 동아대학교 학보사 기자 생활을 시작하는 한편 가정교사, 학원 강사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교적 순탄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대학가를 휩쓸면서 청년 김민남은 그 중심에서 학보사 편집국장, 논설위원으로서, 또 총학생회장 자문위원으로서 각종 성명서와 결의문을 작성하고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제적당하게 된다.

제적된 이듬해 다시 복학을 하고 1966년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당시 법경대 학장으로 그를 아꼈던 경제학과 김서봉 교수의 권유로 대학원 경제학과 진학을 결심하고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대학 당국은 구속과 제적을 당한 전력을 문제 삼아 '입학 불허' 처분을 내렸다. 불투명한 진로와 함께 답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법관이 되면 법대 교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교로 돌아가기 위해 또 교수가 되기 위해 고등 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967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는 부산을 떠나 친구가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강원도 최전방 부대 근처의 하숙 집에서 머무르면서 고시공부를 준비하던 차에 마침 동아일보의 입사 시험

공고를 접하고 시험을 치렀다. 그해 10월 청년 김민남은 동아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일보 입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습기자 10기로 언론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967년 10월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이듬해 4월 출판국을 거쳐 2년 후에는 동아방송에 뉴스를 공급하는 방송뉴스부로 옮겨 주로 사회부와 정치·경제부서의 취재에 종사하였다.

그가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1967년부터 1975년까지 8년간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동시에 가혹한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이 터져 나오는가 했더니, 1968년 1월 무장 공비 서울 침투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온 나라는 전시 체제로 돌변한다. ‘일하면서 싸우는’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군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국회는 여당 의원만으로 삼선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이를 전후해서 삼선 개헌 반대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번져 가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위수령을 발동하고 무장 군인을 대학에 진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는 유신 헌법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다. 이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출마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얼어붙은 겨울 공화국 속에서도 새봄을 예고하는 움직임은 이어졌다. 1973년 유신 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장준하, 백기완 선생 등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1974년 1월 8일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가운데, 동아일보에 노조가 결성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김민남 기자도 무기정직을 당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자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10월 24일 역사적인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로 시작되는 이 선언문은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공표하였다.

김민남 기자는 이 역사적인 ‘언론자유수호선언’의 적극적 참여자였다. 그는 이계익, 조천용, 송경선, 심재택, 정연주 등과 함께 실천특위의 상임위원으로 자유 언론 실천에 앞장섰고 결국 1975년 3월 17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몸을 담고 있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130여 명은 한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회사로 난입한 괴한들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수료만 하고 논문을 쓰지 않았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여 1978년 이상희 교수의 지도 하에 『농촌사회 발전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교 은사인 신순기 교수와 김병규 교수가 그를 찾아 모교에서 같이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마침내 1978년 모교의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학자의 길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학교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다. 1979년 10월 동아대와 부산대의 수천 명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 시민들과 합세해 유신 철폐 등을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바로 부마항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10·26이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의 수장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된다.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학생들은 연일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총장과 일부 교수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혼란스런 상황에서 그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책임자로 지목되어 반 역지로 학생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기대도 잠시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광주의 죽음을 딛고 정권을 장

악한 신군부에 의해 다시 세상은 얼어붙었고 대학 내의 분위기도 반전되었다. 학생지도위원회 삼임위원이었던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하루아침에 차가워졌고, 그해 7월 어느 날 정보기관에 의해 끌려가 보름 동안 조사를 받고 해직되었다.

해직된 지 한 달쯤 뒤에 책 보따리를 싸들고 친구가 소개해 준 통도사 말사 취운암으로 들어갔다. 이때 번역해서 출간한 책이 『산업사회학』이다. 그리고 해직을 당한 뒤 꼭 2년 만인 1982년 가을, 동아일보의 입사 동기이며 동아투위 활동도 같이 했던 친구 고준환(현 경기대 교수)의 추천으로 농수산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정여론실장 자리에 취직이 되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농정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3,000여 명의 농정 여론 모니터들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1983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도 진학하게 된다.

1984년으로 접어들면서 경색된 분위기만으로는 정권 유지와 권력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전두환 군사 정권은 1984년 6월 해직 교수들에 대한 정부의 복직 허용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4년 9월 1일 그는 그리던 모교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연구와 교육에만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1985년 4월, 학교 당국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학보사 주간 발령을 냈다. 그는 복직하고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고사를 했으나 그가 편집국장까지 지낸 학보사 기자 동문인 데다가 동아일보 기자 등을 거쳤으니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1987년에 들어서면서 6월 항쟁과 맞물려 학교는 또 한 차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연일 총장과 파벌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재단·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첨예한 대립 상황으로 학사 행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그는 학보사 주간과 총장 비서실장을 맡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1988년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그해에 동아대학교에 신문방송학과가 설치된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이었다. 학과장을 맡은 그는 이제 언론학 분야에 매진하게 되는 한편, 그동안 고달프고 경황이 없어 미루어 두었던 박사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마침내 1990년 박기순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한국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권력 영역이 위축되면서 30여 년 동안 미뤄져 왔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는 부산 지역 인사들과 모여 시민 사회 운동의 가능성과 방향 그리고 구체적 방법론 등을 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산 최초의 시민운동 단체인 지금의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합’의 전신인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시민운동연합(약칭 정사협)’이 탄생하였고 그는 초대 공동 의장에 추대됐다.

1994년에 들면서 그는 언론홍보대학원의 설치를 서둘렀다. 지역 사회 언론인들과 언론 및 광고에 관심을 가진 지역 인사들에게 재교육 또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창달에 기여하고 대학의 지역 사회 봉사를 실현한다는 것이 언론홍보대학원 설치의 목표였다. 1995년 3월 개원과 함께 그는 초대 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동아대학교 부총장, 한국언론학회 이사, 집행위원 및 감사, 부산경남언론학회 회장,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는 1993년 지방 대학 교수로서는 드물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02년에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최초로 동아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설치했다. 그간 시민사회에 대한 봉사와 학술활동에 대한 기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에는 부산문화대상을 그리고 2003년에는 제1회 부산경남언론학술상을 수상했다.

시민사회에 대한 봉사는 27년간 재임했던 동아대학교에서 2005년 정년을 맞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전국지방분권운동 공동 상임의장, 사단법

인 시민사회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5년 (구)방송위원회에서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3년 동안 활동했다. 이를 통해 시민미디어 교육 및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부기관의 역할 정립에 힘썼다.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김민남 교수의 연구업적이라면 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에 관한 연구』(1990)와 말년(1997~1998년)에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생활을 마치고 출판한 『공공저널리즘과 한국 언론』(2000), 그리고 그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2003)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들이 있지만 이 둘 혹은 셋의 저술의 지류로 묶어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두 저술 중에서 전자의 학위논문은 한국 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으로서 ‘두레’와 ‘동제(洞祭)’를 연구한 것이고 후자는 신문, 특히 지역신문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모형으로서 공공저널리즘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관이하게 다른 것 같지만—차후에 밝히겠지만—그 저변에는 아주 짙은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처음에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구해서 읽고 내심 놀랐다. 우선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완벽했으며 내용도 매우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매체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그의 표현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마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이 참신했기 때문이다. 관련 문헌에 대한 배경적 지식도 놀라웠고, 연구 주제의 성격상 현지 부락조사를 실시했는데 경기도 안성군, 전북 김제군, 경북 청도군에서 각 1개 부락씩 3개

부락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그리고 보완조사를 실시했다는 성실함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놀라움은 그의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풀렸다.

김민남 교수가 한국의 농촌사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그가 경북고등학교 2학년 때 교지 『경맥(慶脈)』에 ‘농촌 경제의 부흥책’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후 폐결핵으로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한 농민 운동 즉 ‘4-H 운동’에 투신하여 전방위로 농촌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서 농촌사회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후 동아대학교에 입학하여 동아대학보 기자로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농촌문고협찬위원회를 결성하여 책을 수집하는 등 농촌의 문고활동을 도왔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되어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쓴 석사 논문의 제목 역시 『농촌사회 발전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 따라서 지천명(至天命)의 나이가 되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가히 그의 농촌에 대한 애정과 학문적 성취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농촌사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졌던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농민들의 농업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노동 속에서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원초적 형태 내지 본질이 담겨있다고 말한다(1990, 3쪽). 특히 하나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마당으로서의 두레와 동제는 전통사회 농민들의 노동현장이요 삶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한국적 공동체 및 공동체 문화 형성의 바탕이며 주요 기제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5쪽). 나아가서 그는 두레와 동제라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마당에서 역사를 만나고 과거의 문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6쪽)고 고백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한국 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인 두레와 동제야 말로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원형이 담겨있는 것이며, 한국적 공동체 형성의 바탕이며, 나아가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상향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보통 의사소통이라고 번역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그 속에 ‘나눔(sharing)’, ‘참여(participation)’, ‘교제(association)’, ‘친교(fellowship)’ 그리고 ‘공통의 믿음을 가짐’ 등등의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원을 따져보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는 ‘공통(commonness)’, ‘영적 교섭(communion)’, ‘공동체(community)’ 등의 용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또 종교적 전통에서 ex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공동체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하는 파문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고대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를 전하고 받는 행위라기보다는 공유된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사람들을 친교와 통일성 속에서 함께 끌어 모으는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초기의 원시공동체란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을 함께 거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그들의 조상신(부족신, 수호신, 지모신)을 모시고 성스러운 의식, 즉 제사를 거행하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보통 사회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에는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가 있다. 공동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익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장이다. 가족이 함축하는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사회는 사람, 희생, 이해에 기초한 운명적 인간 결합인 반면 이익사회는 고려, 타산, 계약과 같은 선택 의지로 이어진 인간 결합이다. 이익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타산에 입각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시하고 매우 과제 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공동사회에서 개인은 모두가 한 뿌리라는 의식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중시하며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특징을 갖는다.

대체로 인류 초기의 부족사회는 공동사회의 성격이 강하다. 인류 문명이 발상했다는 고대 문명, 예컨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고대 그리스 지역의 고대 도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의 도시들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형성되었다. 이 신전에는 부족의 수호신이 모셔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을 통해 하늘에 혹은 땅에 있는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을 소통시켰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부족사회는 일종의 제사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족민들은 부족 내의 불협화음과 자연적 재난이라는 부족신의 노여움을 제물을 제공함으로써 달랠 수 있다고 믿었다. 희생물을 의미하는 제물은 따라서 성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희생 위에 부족사회의 평화와 화합, 즉 부족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이다.

김민남 교수가 한국 농촌사회에서 발견했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마당이라는 동제 역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천의식의 하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동제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신(洞神)과 마을공동체 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신-인간 커뮤니케이션이면서 동시에 주민 상호 간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에 대해 동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매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객체이며, 동시에 인적인 매체로 작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고했다. 또 구전되어온 동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해 본 바, 대체로 지역을 보호하는 동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대동적인 기원과 지역

주민 상호 간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공동체 지향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김민남 교수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형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지향은 사실 그의 말년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용어와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어색하게 결합된 이 책은 저자 자신이 고백하듯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인 공동체적 삶과 그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의 연결고리의 모색’을 화두로 삼았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이 만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필자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만약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동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내포와 외연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사회의 다소 폐쇄적이고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는 것은 당위성과 관계없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 철학자 들뢰즈(Deleuze)의 표현을 빌면, 현대인의 삶의 양식은 농경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라 유목사회의 탈주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다중적 의미의 갈래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하는 가운데 고통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호의 진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반(反)커뮤니케이션 혹은 비(非)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삶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커뮤니케이션/비커뮤니케이션, 합리적/비합리적, 긍정적/부정적이라는 이분적 도식을 넘어선 본원적인 대(大)긍정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사실 공공저널리즘은 미국의 언론이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를 추구하면서 일반 시민 혹은 공중이 공적 영역인 저널리즘에서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름은 공공저널리즘이라고 붙였지만, 그 핵심적 내용이 지역사회 참여적 보도, 공공 쟁점의 의제화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보도, 또 시민중심의 보도 등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형태의 참여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저널리즘의 속성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공저널리즘이란 이름만 놓고 보면 그것은 저널리즘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저널리즘의 이론적 배경을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구하는 경우가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 본인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봉건계급적 질서를 타파한 새로운 시민계급이 공개장의 참여자로서 공중을 구성하는 부르주아 공개장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에 강조점을 둔다면 결국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사가 지역의 시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공통 의제를 개발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사실 김민남 교수는 공공저널리즘의 이러한 시민 참여적 특성을 가지고 “공공저널리즘이 우리가 잃고 살았던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공동체의 염원을 비교적 잘 반영해주는 하나의 지역언론 운동 내지 모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시민저널리즘을 위한 퓨센터(The Pew Center for Civic Journalism)’와 ‘공공생활과 언론 프로젝트(Project on Public Life and the Press)’와 같은 단체들이 시민을 참여시키는 데 따른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결국 개별 언론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대한민국의 언론정책과 맞물려 있는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이론적 중심은 공동체에 고정되어 있고 그 주변에 지역 언론, 공공저널리즘, 언론사 등등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마도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휴먼커뮤니케이션이 지모신의 매개 속에서 통합된 대동적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그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객체가 되고 또 객체가 주체가 된다. 또한 이러한 대동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제의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 생산적 요소와 놀이적 요소, 축제적 요소와 회의적 요소가 복합 혹은 통합된다. 사실 이러한 본원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개념적 근거로 삼고 있는 세버린(Severin)과 텐커드(Tankard)의 의미공유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나 밴런드(Barnlund)의 구조적 관점 및 기능적 관점은 스케일이나 깊이 모든 측면에서 초라하고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스케일이 좁기는 하버마스(Harbermas)의 공론장 개념이나 메리트(Merritt)의 공공저널리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기껏해야 장구한 세계사의 짧은 시기, 즉 근대 세계 서구인들이 합리적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가.

어른의 길, 선비의 길

김민남 교수의 인간적 면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그가 화갑을 맞이하여 여러 지인들이 그와 맺었던 인연의 편린들을 엮어 놓은 화갑 기념 문집 『수양산 그들이 팔십 리를 가듯이』(2000)가 있다. 여기에 글을 보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의 그들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념 문집의 성격상 모든 글이 그의 인간됨과 삶에 대한 존경과 예찬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농촌 운동에 투신했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분노하면서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제적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되어서는 1960~1970년대의 한국사회의 격동기를 헤쳐 나가면서 우리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아픔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 대학에 자리를 잡고서도 대학사회는 그를 순수한 학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대학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줄 수 있는 해결사이기를 요구하였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것이다. 그 또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천성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인품을 지녔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대학에서 강제해직 당한 뒤 “내가 죄가 있다면 단지 학생들을 사랑했던 죄밖에 없다”고 대답했듯이 그는 본성적으로 어진 사람(仁者)이다.

한 때 동료이자 후배교수였던 강상현의 표현대로 김민남을 한마디로 ‘학자’로 쪼개어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그의 학문세계에 대해 평한 부분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평가만을 가지고 그의 삶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에게는 학문적 유혹만큼이나 아니 학문적 유혹보다 더 정치적 유혹도 있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적 자질에 대해 알아보고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를 원하였다. 리더십의 요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며,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인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

인간 김민남의 이러한 리더적 자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동아대학보의 먼 후배이자 동아대학보 기자동문회에서 회장과 총무로 인연을 맺은 차용범 부산매일 편집국장이 칼럼집을 발간했을 때였다. 차국장은 그게 그렇게 소문을 낼 일도 아니고 남에게 괜히 폐를 끼치는 것도 싫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김민남 교수가 칼럼집 발간을 기념

하기 위해 학보 동문들과 오붓한 자리를 마련하려 하니 아무 부담 없이 나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요청을 하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완곡히 거절당하자 작심한 듯이 다음과 같이 그를 나무랬다(김민남, 2000, 63쪽).

“왜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려 하는가? 혹 남을 초청해서 폐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 살아가며 값으면 될 일 아닌가? 자네는 남의 출판 기념 모임에 갈 때도 내일 돌려받을 것을 기약하고 가는가?”

필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만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선생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 비교되면서 흔들렸다. 방안의 북창 옆에다 써 붙여 놓고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물 한 쪽박 찬밥 한 술이라도 거저먹지 말며…”로 시작하는 그의 북명(北銘)은 조선시대 선비의 기개와 삶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필자는 운이 좋아 명색이 교수가 됐지만 살다보니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이제 학자로서 지천명을 앞에 두고 있으나 지금도 앞은 망막하고 뒤는 까마득하다. 언감생심 김민남 교수와 김시습 선생을 견주어 비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나마는, 이 혼탁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본받아 쫓을 사표를 갈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문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물 한 쪽박 찬밥 한술이라도	水一瓢食一簞
거저 먹지 말며	切勿素餐
한 그릇을 먹었으면 한사람의 몫을 하되	受一飯使一力
모름지기 의로움의 뜻을 알라	須知義適
하루아침의 하찮은 근심은 없더라도	無一朝之患
종신토록 큰 근심을 걱정하며	而憂終身之憂
병 같지 않은 병이 있을지라도	有不病之癘
고칠 수 없는 그 낙을 즐기자	而樂不改之樂

선비의 풍도를 잊지 말라	敦尙士風
염치는 개운하고 호뭇하더라	廉恥輕厭
세태의 흐름은 사특한 것	俗態詐慝
남이 칭찬한다고 좋아 말고	勿喜矜譽
남이 헐뜯는다고 노하지 말고	勿嘖毀辱
기꺼이 순리를 따르노라면	怡然順理
조용히 얻는 것이 있으리로다	悠然有得
골짜기로 피어오르는 구름에 반하지 말며	無心出岫之雲影
임자 없는 달빛에 아첨하지 말라	不阿懸空之月色
처신과 말에 매달리지 않음은	動靜語默忘形骸
아득한 태평성대의 순박함이요	羲皇上世之淳朴
몸가짐과 법도에 상상을 담은	容止軌則存想像
당우 삼대의 바탕일러라	唐虞三代之典則
네가 돌아볼 때마다	冀子觀省
이 북벽에서 느낄지어다	感於北壁

김민남 교수님께서서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인터뷰를 한사코 고사했다. 정년할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며 오히려 가슴이 설레던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 병마는 그런 계획을 헛된 꿈으로 돌려놓았다. 물에 젖은 솜이불처럼 무거운 육신의 무게가 학문과 사회봉사에서의 의욕을 내리누르는 듯 했다. 누가 말했던가.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교수님께서서는 일체의 활동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학을 위해 인터뷰 한다는 것이 귀중한 지면이나 낭비하고 더럽히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짧게 찾아뵈었던 맥을 나서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선생께서 건강을 회복해 못다 이룬 학문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민남 교수 약력

- 194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동 하천리에서 부 김영훈 선생과 모 윤선이 여사의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남.
- 1958년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폐결핵으로 2년 만에 수료.
- 1960년 모계고등학교 편입, 이듬해 졸업.
- 196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입학과 함께 동아대학보 기자로 활동함.
-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6·3 항쟁의 주도하고 제적당함.
- 1966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1967년 동아일보 입사. 주로 방송뉴스부(동아방송)에서 일했으며 8년 만에 해직.
- 1974년 10월 동아일보사에서 '언론자유수호선언'의 참여자 이계익, 조천용, 송경선, 심재택, 정연주 등과 함께 실천특위의 상임위원으로 자유 언론 실천에 앞장 섬.
- 1975년 자유언론 실천에 앞장섰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50여 명과 함께 강제 축출됨.
- 197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졸업(문학석사).
졸업 논문 "농촌사회 발전과 매스커뮤니케이션."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부임.
-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당함.
- 198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여론실장으로 취직(~1984년).
- 1984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복직(~1987년).
- 1988년 동아대학교에 신문방송학과를 개설, 학과장 취임(~1993년).
- 1990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졸업 논문 "한국농촌사회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마당에 관한 연구."
- 1993년 지역언론학계 최초로 부산경남언론학회 창립, 회장 취임(~1995년).
- 1995년 지방 대학 최초로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설립, 원장 취임(~1997년).
- 1997년~199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방문교수. 방문교수 생활 마치고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출판.

1998년 동아대학교 부총장 취임(~1999년).

1999년 한국방송학회 회장 취임(~2000년).

2003년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의 보완판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 출판.

2005년 정년퇴임.